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Caregiving System and Child's Attachment System*

유영미(Youngmi Ryu)¹⁾

이 영(Young Lee)²⁾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he attachment/caregiving system at a dyadic level, and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representations of caregiving, maternal caregiving behavior, and child attachment. Seventy-five middle-class mother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ages 3-4)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indicated a strong correspondence between maternal representations of caregiving and maternal caregiving behavior at the secure/insecure and ordered/disordered level. The correspondence between maternal representations of caregiving and their preschooler's attachment, and between maternal caregiving behavior and their preschooler's attachment at the secure/insecure level were also stro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maternal representations of caregiving and their preschooler's attachment was mediated by maternal caregiving behavior.

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표상(maternal representation of caregiving),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caregiving behavior), 유아의 애착(preschooler's attachment), 유아 낯선상황실험(preschool Strange Situation)

I. 서론

아동이 자신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관계는 그 질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떤 아동은 양육자의 주위에서 꽤 편안해 보이고 양육자가 자리를 비워도 기다릴 줄 아는 반

면, 어떤 아동은 매우 불안해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아동의 애착의 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패턴과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내적실행모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George & Solomon, 1999; Hesse, 1999; Main, Kaplan, &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¹⁾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전문연구원

²⁾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Ryu,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E-mail : ryuym@yonsei.ac.kr.

Cassidy, 1985).

Bowlby(1969, 1982)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행동학적 관점과 체계이론을 기초로, 영아의 근접추구행동처럼 부모의 양육행동도 행동체계에 의해 인도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은 이후 Solomon과 George(1996)에 의해 더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아동이 돌봄(care)을 구하고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듯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Bowlby(1969, 1982)는 이런 호혜적인 행동체계를 양육행동체계(caregiving system)라고 부르고, 아동의 애착행동체계는 부모의 호혜적인 양육행동체계에 의해 보완된다고 하였다. Bowlby는 애착은 애착관계에 기여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 중 한 가지일 뿐이므로 다른 하나의 구성요소인 양육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의 깊게 연구, 검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자녀 관계 발달에 양육체계가 어떤 공헌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은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다(George & Solomon, 1999). 따라서 한 쌍의 체계로서의 애착/양육체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애착체계와 양육체계는 둘 다 그 관계에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안정된 정신적 표상들과 행동패턴으로 나타난다(Bowlby, 1969, 1982; Main 등, 1985). Bowlby(1969, 1982)는 이런 정신적 표상들을 내적실행모델이라고 하였는데, 내적 실행모델이란 자신,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정신과정이며, 개인 내에서 그리고 세대간에 걸쳐서도 안정적 성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적실행모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낯선 상황실험(Ainsworth & Wittig, 1969)을 이용하여 영아의 애착에 대한 실행모델을 측정하는 것

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성인 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AAI) : George, Kaplan, & Main, 1984, 1985, 1996)을 이용하여 성인에게서 자신의 아동기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성인애착면접이 양육자의 민감성을 예언한다고 제시해왔지만, AAI는 부모 자신의 양육에 대한 현재의 마음상태나 정신적 표상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몇몇 연구자들은 양육체계의 표상적 모델을 정의하는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시켰다. Aber, Slade, Berger, Bresgi와 Kaplan(1985)의 '부모발달면접(Parent Development Interview : PDI)'은 어머니가 아동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갖는 표상을 평가한다. George와 Solomon(1996)의 '양육경험 면접(Experiences of Caregiving Interview)'은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자신에 대한 표상을 분류한다. Zeanah, Benoit, Hirshberg, Barton과 Regan(1995)의 '아동에 대한 내적실행 모델 면접(Working Model of the Child Interview : WMCI)'은 영아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표상을 분류한다. '낯선 상황실험 후 면접'(Post Strange Situation Interview(PSSI) : Marvin & Whelan, 2000)은 낯선 상황실험 실시후에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조사한다. 한편, 임상장면에서는 AAI, PDI, PSSI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만 면접과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실용적,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ooper, Hoffman, Marvin과 Powell(1999)은 '안정성 면접(the Circle of Security Interview : COSI)'을 개발하였다. COSI는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반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면접으로, AAI, PDI, PSSI에 포함된 중요한 질문들로 문항을 구성하여 이 3가지 면접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와 거의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시간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어머니의 양육표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실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도구도 연구, 개발되지 못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표상을 연구하는 도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양육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이 AAI 분류(예 : George & Solomon, 1996) 및 아동의 애착(예 : Benoit, Zeanah, Parker, Nicholson, & Coolbear, 1997; Bretherton, Biringen, Ridgeway, Maslin, & Sherman, 1989; George & Solomon, 1996)과 연계됨을 지지해주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표상과 아동의 애착 사이의 관계성을 발견한 연구(예 : Bretherton 등, 1989; George & Solomon, 1996)와 관계성을 발견하는데 실패한 연구(예 : Cox, Hopkins, & Hans, 2000)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자녀의 애착의 질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애착 연구 초기부터 많은 연구들이 양육자의 행동과 아동의 애착간의 관계를 조사해왔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애착의 질의 개인차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된 이래(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어머니의 민감성과 아동의 애착간의 관련성을 증명하려는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예 : Pederson & Moran, 1995; Stevenson-Hinde & Shouldice, 1995). van IJzendoorn(1995)은 메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애착표상과 아동애착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23%는 어머니의 민감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표상과 아동의 애착을 연계시킨 Ainsworth의 이론적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동

애착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민감성만이 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해주는 것이다(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van IJzendoorn, 1995). van IJzendoorn(1995)의 연구에서 확인된 “(세대간) 전이의 간격(transmission gap)”을 설명해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던 연구들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애착에 적합한 맥락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 양육행동(good parenting)’ 또는 어머니의 보호 이외의 다른 행동에까지 초점을 분산시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Goldberg, Grusec, & Jenkins, 1999; Thompson, 1997).

최근 들어 성인의 내적실행모델과 아동의 애착 사이의 이러한 전이의 간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Marvin과 Britner(1995)는 낮선 상황실험에서 양육자의 행동패턴을 평가하는 ‘양육자 행동 분류 체계(Caregiver Behavior Classification System : CBCS)’를 개발하여 표상연구와 행동연구 사이의 간격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낮선 상황실험에서 관찰된 유아와 부모의 행동패턴을 분류하고 유아의 애착분류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애착-양육 맥락에서 보인 양육자의 행동과 유아의 애착 분류간의 높은 일치율을 발견했다(Britner, 1996). 이처럼 유아기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양육전략이 유아의 애착전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착-양육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갖는 표상의 질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애착행동과 양육행동을 이끌어내는 맥락에서 양육자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표상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Biringern, Matheny, Bretherton, & Sherman, 2000; George & Solomon, 1989; Slade, Belsky, Aber & Phelps, 1999; Robinson, 2003), 국내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표상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애착-양육 맥락에서 검증하는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Bowlby는 애착을 전생애적 구인으로 연구했지만 낯선 상황 실험절차를 이용한 연구가 이뤄진 이래로 애착 연구의 초점이 영아기로만 좁혀지게 되었다. Bowlby의 애착 이론에서는 ‘목표-교정적 파트너십(goal-corrected partnership)’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에 유아는 애착대상이 자기와 다른 목표 및 욕구를 지닌 개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유아 자신의 욕구 및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맥락 내에서 협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유아는 사회적 규칙에 관한 지식을 얻고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지며 부모와의 격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좀더 오랜 시간 동안의 격리가 일상화될 것이고 당황도 덜 할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애착행동의 레퍼토리도 증가하여 미소 짓기, 인사하기처럼 좀더 먼 거리에서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들이 지표로 기능한다. 유아기동안의 애착 구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거리(distal) 지표들과 애착대상에 대한 내면화된 표상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Cicchetti 등, 1990).

반면, 대부분의 유아기 애착 연구에서 빠져들기 쉬운 함정은 유아의 표상적 능력 및 언어소통 능력 발달 면에만 집중한 나머지 유아의 애착 행동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 즉 행동은 배제시킨 채 인지 수준으로 애착연구의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나 Bowlby의 이론은 내적실행모델과 행동 간의 중요한 연계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행동의 수준에서 내적 표상의 수준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수준에서 계획과 목표를 처리하고 조작하면서, 그러한 내적 처리과정을 통해 점차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Marvin & Britner, 1999). 그러므로 유아기 애착 연구에서도 행동을 고려한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관점에서 Cassidy와 Marvin(1992)은 MacArthur Working Group과 함께 2½~4½세 유아들의 애착의 질을 평가하는 데 발달적인 연속성의 준거를 적용하여 유아애착분류체계를 고안하였다. 이 체계에서는 Ainsworth의 체계와 유사하게, 낯선 상황실험 동안 보이는 행동에 근거하여 유아의 애착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유아애착분류체계는 영아애착분류체계(Ainsworth 등, 1978)나 6세 아동을 위한 애착분류체계(Main & Cassidy, 1988)에 비해, 국내 연구에 적용된 예가 보고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assidy와 Marvin(1992)의 유아애착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유아 애착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해 온 유아의 애착행동 측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애착/양육체계 구인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상기의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체계는 어떠한가?

1-1. 어머니의 양육표상은 어떠한가?

1-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1-3.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낯선 상황실험을 통해 본 유아의 애착체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

체계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1.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3. 어머니의 양육표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애착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세와 4세 유아 75명과 그들의 어머니 75명이었다. 서울소재 네 곳의 유치원과 경기도 신도시 소재 두 곳의 유치원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어머니 7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진행과정 중 실험절차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여 탈락된 4쌍을 제외하 총 75쌍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연령은 평균 3세 5개월로 3세가 54.7%, 4세가 45.3%였고, 성별 구성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49.3%와 50.7%로 거의 비슷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는 45.3%, 셋째는 2.7%였다.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가 평균 34.1세, 아버지가 평균 37.1세였으며, 어머니의 89.3%, 아버지의 78.7%가 3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92%, 아버지의 97.3%가 전문대졸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대부분(88%)이고 전일제 취업모가 8%, 시간제 취업모가 4%를 차지했다.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400만원대(25.3%)가 가장 많았으며, 76%가 300만원대 이상이었다. 따라서 부모 학력과 소득을 같이 고려

하여 볼 때 본 연구대상 유아의 가정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 낯선 상황실험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표상은 낯선 상황실험이 끝난 후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낯선 상황실험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여 분류하였다.

1) 유아 낯선 상황실험

유아 낯선 상황실험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낯선 상황실험(Ainsworth & Wittig, 1969)을 유아(2.5세~4.5세)에 맞게 수정한 Cassidy와 Marvin(1992)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유아 낯선 상황실험 역시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놀이하기, 유아가 낯선 이와 남게 되는 격리 및 어머니와의 재결합, 유아 혼자 남는 두 번째 격리, 낯선 이와 있기, 마지막으로 어머니와의 재결합의 8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1) 유아의 애착유형 분류

유아의 애착유형은 Cassidy와 Marvin(1992)의 유아애착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근접성/접촉, 몸의 방향, 대화의 내용과 스타일, 응시, 정서의 5가지 차원에 따라 드러난 애착전략에 따라 안정, 회피, 의존, 비조직/통제, 불안정-기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표 1>참고).

본 연구자는 2004년 1월 미국 틀레인 대학에서 2주 간 실시된 유아 낯선 상황절차를 이용한 유아 애착분류체계 워크숍에 참석하여 Robert S. Marvin에게서 훈련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무작위로 선택한 15사례에 대해 Marvin에게 훈련받은 다른 평정자와의 일치도는 $k=.81$ 이었다.

〈표 1〉 유아 애착 유형과 대응되는 어머니의 양육표상 및 양육행동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표상
조 직	안정(Secure, B) 애착대상을 탐색에 대한 안전 기반으로 사용한다. 재결합행동은 온화하고 긍정적이다.	안정(Secure)-베타(B) 유아 낯선 상황 실험에서 느긋하고, 편안하며, 친밀한 패턴을 보인다.	안정(Secure)-베타(B) 자녀와의 애착-양육경험들을 자유롭게, 즉시, 방어적이지 않게 회상한다. 비언어적행동은 편안하다.
	회피(Avoidant, A) 탐색이 애착에 비해 훨씬 강조된다. 특히 재결합시 양육자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을 회피한다.	거부(Dismissing) -알파(A) 애착/양육 상호작용을 회피, 거부하거나, 탐색, 훈육 등 다른 상호작용으로만 제한한다.	거부(Dismissing)-알파(A) 자녀와의 친밀함, 양육 및 애착과 관련된 경험들에 대한 감정과 사고를 회피/최소화하고 관계를 이상화하려 애쓴다. 비언어적 행동은 대화주제와 일치되지않게 발다.
	의존(dependent, C) 애착대상에 대해 극도의 의존성을 보이며, 애착대상과의 격리에 강하게 저항한다. 재결합시 근접추구가 특징이다.	몰입(Preoccupied) -감마(Γ) 자녀가 어머니에게 보이는 애착행동, 친밀성, 의존성을 과도하게 조장하면서도 이런 친밀함이 부담스러워 화를 내기도 한다.	몰입(Preoccupied)-감마(Γ) 자녀의 애착신호는 강조하고, 자율성을 얻고자하는 아동의 신호는 왜곡, 무시, 방해하려한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고, 친밀함을 강조하면서도 부담스러워 분개한다.
비 조 직	비조직/통제(Disorganized/Controlling, D) 통제적인 행동 또는 영아의 비조직유형과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 재결합상황을 아동이 통제한다.	비조직/포기(Disordered/Abdicating)-델타(Δ) 자녀와의 애착/양육 상호작용이 다소 비조직화되어 있다. 재결합시 자녀가 통제권을 갖는다.	비조직/포기(Disordered/Abdicating)-델타(Δ) 면접시 이야기와 행동이 다소 비일관적이다. 애착-양육 상호작용에서 역할 전도된 관계를 보인다.
	불안정-기타(Insecure-Other, I) 분명히 불안정이나 위의 어떤 불안정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 흔히 회피와 의존전략이 결합되거나 독특하다.	비조직/기타(Other) -이오타(I) 알파, 감마, 델타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패턴 또는 여러 패턴들이 조합된 패턴을 보인다.	비조직/기타(Other) -이오타(I) 전형적으로 면접시 이야기와 행동이 비일관적이다. 확실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 분류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은 Marvin과 Britner (1995)의 양육자 행동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유아 낯선 상황실험에서 어머니의 행동패턴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격리-재결합 맥락에 특히 관심을 두면서도 낯선 상황실험 전체에 걸친 전반적인 어머니의 행동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되어있다. 응시, 근접성 및 접촉의 조직화, 대화의 질, 정서조절, 아동의 행

동에 대한 훈육의 5가지 차원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 거부, 몰입, 비조직-포기, 비조직-기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표 1>참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분류를 위해 본 연구자와 유아 낯선상황에서 분류된 유아의 애착유형을 알지 못하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이 수집된 자료 중 15사례를 무선으로 선택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유아의 애착 유형을 모두 분류한

뒤 3주의 간격을 두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분류를 실시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k=.89$ 였다.

2) 안정성 면접

어머니의 양육표상은 Cooper, Hoffman, Marvin과 Powell(1999)의 '안정성 면접(COSI)'을 실시하고, Robinson과 Marvin(2001)의 분류체계에 따라 안정, 거부, 몰입, 비조직-포기, 비조직-기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표 1> 참고).

안정성면접(COSI)은 애착과 관련된 3가지 면접 즉, 낯선 상황실험 후 면접(PSSI : Marvin & Whelan, 2000), 부모발달면접(PDI : Aber 등, 1985), 성인애착면접(AAI : George 등, 1996)으로부터 추출된 총 25개의 면접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성면접(COSI)의 분석은 어머니의 이야기의 일관성, 어머니의 정서 및 정서조절의 질, 이야기의 신뢰성, 어머니가 관계들에 대해 삽화적인 예를 제공하는 능력, 자기-반영적 기능, 아동의 조망 수용, 그리고 목소리의 톤과 세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어머니의 양육표상 분류를 위해 본 연구자와 연구대상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애착분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이 수집된 자료 중 15사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아 애착유형 분류와 7주, 어머니의 양육행동 분류와는 3주 간격을 두고 어머니의 양육표상 분류를 실시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k=.85$ 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유아-어머니 7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Cassidy와 Marvin(1992)의 유아 낯선 상황실험의 절차를 실시한 결과,

에피소드별로 유아의 애착행동과 탐색행동이 잘 관찰되어 실험절차를 그대로 실시하기로 하되, 카메라의 조정에 따른 낯선 사람과 어머니의 자리 배치, 장난감의 배치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실시되는 안정성 면접의 소요 시간 및 질문 문항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면접문항 중 매끄럽지 못한 표현을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때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반복해서 보며 분석범주에 대해 평정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실험실에서 2003년 8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먼저 24분 내외에 걸쳐 유아 낯선 상황실험을 시행한 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안정성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 소요시간은 평균 50분이었다. 이 때 유아는 다른 실험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게 하여 유아로 인해 어머니의 면접이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다. 관찰 및 면접의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면접이 끝난 후 어머니는 간단한 인구조학적 배경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산출하고, 연구문제별로 일치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안정 유형과 불안정 유형, 조직유형과 비조직 유형으로 묶어서 χ^2 검증 및 로그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결과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머니의 양육표상, 양육행동유형 및 유아의 애착유형이 인구조학적 변인들과 독립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 순위,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에 따라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 어머니의 양육체계

1) 어머니의 양육표상

어머니의 ‘안전성 면접(COSI)’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표상 유형을 분류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표상은 안정유형(6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거부유형(26.7%)이 많았고, 몰입유형, 비조직-기타유형, 비조직-포기유형 순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 행동

유아 낯선 상황 실험에서의 어머니의 행동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안정유형(61.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거부유형(26.7%), 몰입유형, 비조직-포기유형, 비조직-기타유형 순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은 양육체계의 각각의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은

체계적인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표상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의 5×5 분할표 검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표상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은 92%가 일치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어머니와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2>의 5×5 분할표에 대해 χ^2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1개(84%)여서 χ^2 검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안정유형과 불안정유형의 두 범주로 분류하여(<표 1>참고)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불안정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chi^2=63.006$, $df=1$, $p<.001$). 조직/비조직유형(<표 1>참고)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chi^2=46.301$, $df=1$, $p<.001$).

2. 유아의 애착체계

유아 낯선 상황 실험동안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유아의 애착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표 2>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유형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 표상					전 체
		안정(B)	거부(A)	몰입(r)	비조직/포기(Δ)	비조직/기타(I)	
어머니 양육 행동	안 정(B)	44(58.7)	2(2.7)	-	-	-	46(61.3)
	거 부(A)	1(1.3)	18(24.0)	-	-	1(1.3)	20(26.7)
	몰 입(r)	-	-	4(5.3)	-	-	4(5.3)
	비조직/포기(Δ)	-	-	-	2(2.7)	1(1.3)	3(4.0)
	비조직/기타(I)	-	-	1(1.3)	-	1(1.3)	2(2.7)
전 체		45(60.0)	20(26.7)	5(6.7)	2(2.7)	3(4.0)	75(100.0)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21 cell (84.0%)이 기대빈도 5 이하

<표 3>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 분포 (N=75)

안정/불안정	유아 애착유형	사례수 (%)	조직/비조직
안정	안정(B)	50 (66.7)	조직
	회피(A)	14 (18.7)	
불안정	의존(C)	6 (8.0)	비조직
	비조직-통제(D)	4 (5.3)	
	불안정-기타(I-O)	1 (1.3)	

<표 3>과 같다.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은 안정애착이 50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피애착이 14명(18.7%)으로 많았으며, 의존애착, 비조직-통제적 애착, 불안정-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와의 관계

1)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표상유형과 유아의 애착유형과의 관계를 각각 5범주로 나눠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유형은 76%가 일치하였다. 안정/불안정유형으로 분류한 어머니의 양육표상은 유아의 애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x^2=49.0, df=1, p<.001$). 그러나, 조직/비조직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 간의 관련성에 관한 x^2

<표 4>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 표상					전 체
		안정(B)	거부(A)	몰입(r)	비조직/포기(Δ)	비조직/기타(I)	
유아 애착	안정(B)	44(58.7)	3(4.0)	3(4.0)	-	-	50(66.7)
	회피(A)	1(1.3)	10(13.3)	2(2.7)	-	1(1.3)	14(18.7)
	의존(C)	-	6(8.0)	-	-	-	6(8.0)
	비조직-통제(D)	-	1(1.3)	-	2(2.7)	1(1.3)	4(5.3)
	불안정-기타(I-O)	-	-	-	-	1(1.3)	1(1.3)
전 체		45(60.0)	20(26.7)	5(6.7)	2(2.7)	3(4.0)	75(100.0)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22 cell (88.0%)이 기대빈도 5 이하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행동					전 체
		안정(B)	거부(A)	몰입(r)	비조직-포기(Δ)	비조직-기타(I)	
유아 애착	안정(B)	46(61.3)	1(1.3)	3(4.0)	-	-	50(66.7)
	회피(A)	-	11(14.7)	1(1.3)	-	2(2.7)	14(18.7)
	의존(C)	-	6(8.0)	-	-	-	(8.0)
	비조직-통제(D)	-	1(1.3)	-	3(4.0)	-	4(5.3)
	불안정-기타(I-O)	-	1(1.3)	-	-	-	1(1.3)
전 체		46(61.3)	20(26.7)	4(5.3)	3(4.0)	2(2.7)	7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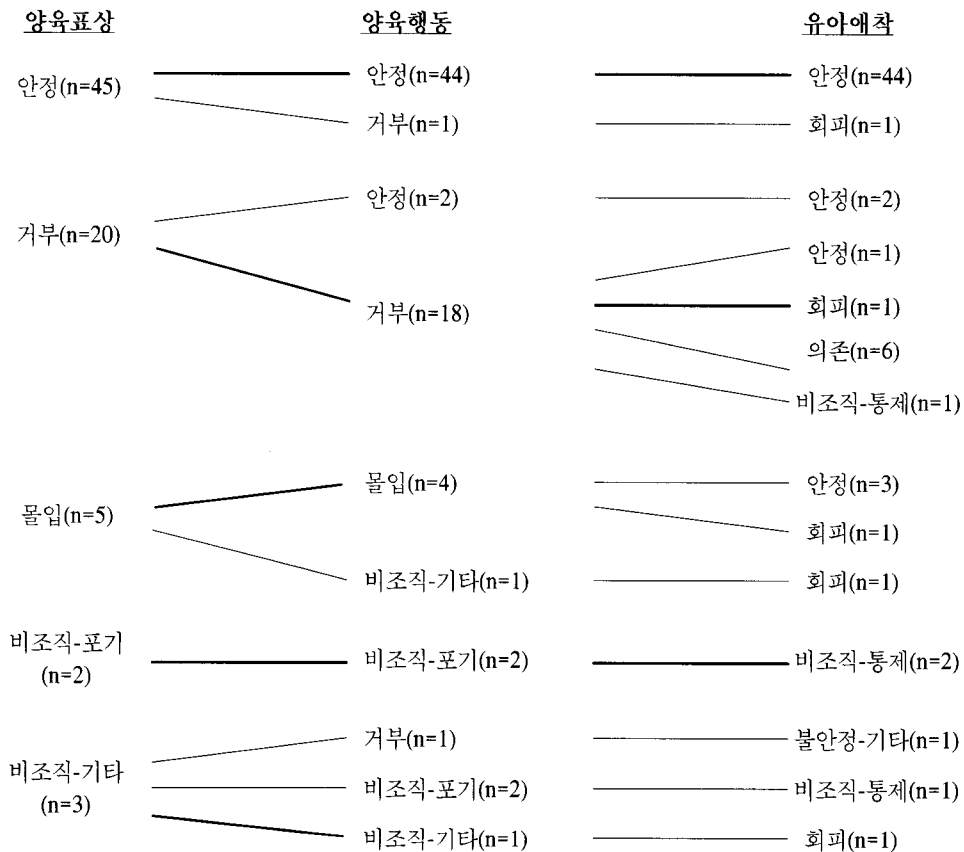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22 cell (88.0%)이 기대빈도 5 이하

검증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유형과 유아의 애착유형간의 관계를 각각 5범주로 나눠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과 유아의 애착 유형은 80%가 일치하였다. 안정/불안정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애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chi^2=59.483, df=1, p<.0001$). 그러나, 조직/비조직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 간의 관련성 검증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 어머니의 양육표상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간의 일치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통계적 모델을 밝혀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표상(5)×어머니의 양육행동(5)×유아의 애착(5)의 3차원 분할표를 살펴보았다. 전체 125개 셀 중 관찰빈도가 보고 된 14개 셀을 중심으로 요약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표상 유형과 양육행동 유형, 그리고 유아의 애착 유형이 모두 일치한 경우는 전체 75쌍 중 56쌍으로 74.7%의 일치율을 보였다. 특히 안정 유형의 일치율이 제일 높았는데 어머니의 양육표상이 안정유형이었던 어머니 45



<그림 1> 어머니의 양육표상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간의 일치

주 : 굵은 선은 일치를 이룬 경우이며, 실선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 것임.

명 중 44명이 양육행동도 안정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모두 안정 유형인 44명의 어머니의 유아 역시 모두 안정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 97.8%가 일치하였다.

<그림 1>의 3차원 분할표에서 관찰된 자료에 대해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로그선형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로그선형분석은 분할표의 모든 칸의 기대빈도가 1 이상이어야 하고 기대빈도가 5 이상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이종성·강계남·김양분·강상진·이은실, 2002), 이차원 주변합들의 대부분이 5보다 커야 한다는(박태성·이승연, 1995)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애착을 안정유형과 불안정유형의 2범주로 각각 다시 분류하여 어머니의 양육표상(2)×어머니의 양육행동(2)×유아의 애착(2)의 3차원 분할표에 대해 로그선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로그선형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표상,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애착이 서로 독립적인 완전 독립모형을 검증하였으나 5% 유의수준에서

<표 6> 어머니의 양육표상×어머니의 양육행동×유아애착 삼원분할표의 로그선형분석 결과 요약표

단 계	모 형	자유도	우도 x^2	p
1단계	[1, 2, 3]	4	148.31	.000
2단계	[12, 13]	2	16.65	.000
	[12, 23]*	2	.30	.860
	[13, 23]	2	20.24	.000
3단계	[12, 13, 23]*	1	.35	.555
	[123]	0	.00	1.000

* 5% 유의 수준에서 적합한 모형
 주) 1=어머니의 양육표상, 2=어머니의 양육행동, 3=유아의 애착

적합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건부 독립성 모형을 검증하였다. 서로 다른 3개의 형태가 있으나 이중 [12, 23] 모형은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일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매개된 간접효과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조건부 독립성 모형은 5% 유의수준에서 적합하였다(우도 $x^2=.30$, $df=2$, $p>.05$).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일치를 증대한다는 가정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쌍의 의존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모형은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은 서로 독립이 아님을 가정하는 것이다. 쌍의 의존 모형은 5% 유의수준에서 적합하였다(우도 $x^2=.35$, $df=1$, $p>.05$). 이 결과는 두 변수 간의 이원분할표에 기초한 x^2 검증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의 검정결과에 의하면 [12, 23]모형과 [12, 13, 23] 모형의 2개 모형이 유의수준 .05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선형분석은 일반적으로 자료에 적합한 모형의 수가 1개 이상이면 여러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경제적(parsimonious)인 모형, 즉 자료에 적합한 가장 단순한 모형을 선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 23]모형을 선택하였다. 이 모형에 의할 때 ‘어머니의 양육표상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서로 독립적이지 아니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애착과 서로 독립적이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으며,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일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매개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 쌍의 체계로서 기능하는 애착/양육체계 구인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만 3세와 4세 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체계를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의 두 수준에서 살펴보고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애착행동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체계를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의 두 가지 하위체계 수준에서 살펴 본 결과,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유형 모두 안정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거부유형, 몰입유형, 비조직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표상은 안정유형 60%, 거부유형 26.7%, 몰입유형 6.7%, 비조직-포기유형 2.7%, 비조직-기타유형 4%였다. 이 결과는 같은 면접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중산층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사하게 유형으로 분류한 George와 Solomon(1996)의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정성 면접'을 사용하여 Head Start/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를 분류한 Robinson(2003)은 표본의 71%가 비조직 유형에 해당될 만큼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을 보고했다. Robinson(2003)과 본 연구 결과의 차이는 표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Robinson(2003)의 경우 빈곤계층의 고위험 표본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중산층의 저위험 표본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안정유형의 어머니가 더 많은 반면, 비조직 유형의 어머니는 더 적게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은 안정유형 61.3%, 거부유형 26.7%, 몰입유형 5.3%, 비조직-포기유형 4%, 비조직-기타유형 2.7%로 분류되었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접근에는 부모양육행동(parenting)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구들과 어린 아동과 부모간의 애착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부모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부모의 행동방식을 분류하는 반면, 애착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 반응성 등의 특정 행동을 묘사하여 아동의 발달과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애착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하여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가 드물어 Britner(1996)의 결과와만 비교하여 보았다. Britner는 2~4세의 의학적인 위험집단(뇌성마비와 간질)과 통제집단 11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 실험 동안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하여 안정유형 48.2%, 거부유형 21.8%, 몰입유형 10%, 비조직-포기유형 8.2%, 비조직-기타유형 11.8%로 분류하였다. Britner(1996)에 비해 본 연구결과는 안정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가 더 많고, 특히 비조직 유형은 더 적었다. 이런 결과의 차이도 의학적인 위험 집단이 포함되지 않은 저위험 정상집단 표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이 체계적인 관련성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의 유형을 5범주로 나누었을 때의 일치도는 92%로 상당히 높았다. 어머니 75명 중 69명이 양육표상 유형과 양육행동 유형간의 일치를 보인 것이다. 애착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표상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성인의 아동기 애착에 대

한 마음상태가 양육체계 발달에 연계되는 방식을 조사해 왔다. Slade 등(1999)은 PDI, AAI, 그리고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AAI에서 안정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이 PDI의 기쁨-즐거움/응집성 척도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거부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이 분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발견했다. George와 Solomon(1996)도 유사하게 AAI와 PDI의 강한 연계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George와 Solomon(1989)은 백인 중류층 6세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경험 면접’으로 양육표상을 분류하고 가정에서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행동은 양육표상과 약한 관련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애착-양육체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출되어지는데 6세쯤 되면 가정에서 질병, 상해, 두려운 경험을 가질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찰 회기동안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이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안전기반 상호작용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실험실 관찰이 좀더 유용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유형의 높은 일치도는 스트레스 상황을 주는 실험실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더 최근 연구로 Biringen 등(2000)은 PAI를 실시한 후 어머니의 표상을 분류했을 때 정서적 유용성 관찰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전반적으로 이런 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치함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범주자료가

아니라 평정척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졌고 비조직적 특성을 평가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표상이 안정/불안정 및 조직/비조직 수준에서도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임을 증명하여 기존 연구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애착체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 낯선 상황철차 동안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여 유아의 애착유형을 분류한 결과, 안정유형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피유형 18.7%, 의존유형 8%, 비조직-통제유형 5.3%, 불안정-기타유형 1.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에서 분류된 유아 애착유형의 분포를 비교하여 보았다. Greenberg 등(1992)은 3~5세의 임상집단 남아 25명과 정상집단 남아 25명의 애착유형을 비교하였는데, 정상집단의 경우 안정유형이 72%에 달한 반면, 임상집단에서는 비조직-통제유형과 불안정-기타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안정유형이 가장 많고 비조직-통제유형과 불안정-기타유형이 적은 본 연구 결과도 정상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ICHD 조기보육 연구팀(2001)은 종단 연구를 통해 15개월 때와 36개월 때의 애착유형을 4범주(B/A/C/D)로 분류하였는데, 36개월 때의 애착유형은 안정유형 62.4%, 회피유형 5.1%, 의존유형 16.8%, 비조직유형 15.8%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의존유형이 더 많고 비조직유형도 많이 나타났다. NICHD 조기보육 연구팀(2001)의 연구는 표집 크기가 크고(N=1060),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유사 표본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유형의 분포도 인구학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표집에서 더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유아 낯선 상황 절차를 이용하여 이뤄진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6세를 대상으로 Main과 Cassidy(1988)의 애착 분류체계를 적용시킨 홍계옥(1994)의 결과를 살펴보면 안정 유형 61.8%, 회피유형 25%, 의존유형 3.3%, 비조직유형 7.9%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비해 안정유형과 의존유형은 더 적고 회피유형은 더 많이 나타났지만, 이런 차이는 연구자가 낯선 상황 절차를 시행하면서 격리시간을 단축하고 애착 분류체계를 수정하여 사용하면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관계가 호혜적으로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체계의 두 가지 하위체계인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 유형을 각각 5범주로 분류하여 일치율을 살펴본 결과, 유아-어머니 75쌍 중 57쌍이 일치율을 보여 일치율은 76%였다. George와 Solomon (1996)은 어머니의 양육 면접 분류와 아동의 애착 유형간의 81%의 일치율을 보고 하였다. Bretherton 등 (1989)도 PAI의 민감성/통찰에 대한 평정을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 분류와 비교했을 때 관계성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안정유형에서 일치가 가장 많았던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표상이 몰입유형인 경우 상응하는 애착유형인 의존유형으로 분류된 사례는 하나도 없고 안정유형과 회피유형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를 해석하기 위해 성인의 애착표상과 영아의 애착유형간의 일치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Fonagy, Steele과 Steele(1991)은 AAI와 영아 낯선 상황실험으로 성인과 영아의 애착유형을 분류하여 자율-안

정, 거부-회피, 몰입-저항유형으로 쌍을 이뤄 일치율을 검증했을 때 몰입유형의 어머니와 저항 애착유형의 영아간의 일치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했다. Zeanah 등(1993)도 역시 어머니-영아간의 애착에서 불일치를 보인 13개 사례 중 8개 사례가 몰입유형의 어머니와 안정유형의 영아였다고 보고 했다.

양육체계는 애착체계의 성숙한 변형(George & Solomon, 1996)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의 몰입적인 양육표상과 유아 애착간의 불일치는 비슷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몰입유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비일관된 양육을 받아왔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는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이 어머니에서 자녀로 세대간 전이될 때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외의 다른 요인(예 : 부부 관계, 가족 상호작용,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 특성)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과 유아의 애착유형을 각각 5범주로 분류하여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아-어머니 75쌍 중 60쌍이 일치율을 보여 일치율은 80%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행동을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상호작용 하는 상황을 관찰하여 어머니의 행동과 유아의 행동에 대해 독립적인 코드를 부여 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정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안정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불안정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자녀들 역시 대부분 불안정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응하는 것에 근거하여 같은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분류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낯선 상황 실험에서 어머니

의 행동은 실험자의 지시에 의해 다소 제약받기 때문에 유아의 패턴은 관찰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패턴은 유아에 의해 비롯되었기 때문에 낯선 상황실험 장면을 떠나서는 유용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낯선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행동이 실제 생활에서의 어머니의 행동과 어떤 관계를 가질 가능성은 높다. Ainsworth와 동료들(1978)은 영아 낯선 상황 절차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의 차이는 낯선 상황 이전과 그 이후의 어머니의 행동들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낯선 상황 실험동안 어머니의 행동은 지시를 통해 그리고 에피소드 자체의 구조를 통해서 통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아 행동 패턴에서의 연속성은 애착대상을 향한 영아 행동의 결정 요소들이 상황적인 결정 요소일 뿐 아니라 조직적인 구성 요소도 포함하는 것임을 제시해준다고 하였다. 낯선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아동이 내면화한 관점에 근거하고, 주어진 사건의 상세 정보들과는 다소 독립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행동 패턴들 또한 (다소 제약을 받을지라도) 애착-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정신적 모델과 일반화된 행동 패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불안정 양육행동-불안정 애착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정 양육표상-불안정 애착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몰입유형인 경우 상응하는 애착유형인 의존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한 사례도 없었던 반면에, 몰입적 양육행동-안정 애착은 3쌍, 몰입적 양육행동-회피 애착은 1쌍이었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인 경우인 20명의 어머니 중 11명의 자녀는 회피 애착유형을 보인 반면 6명은 의존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앞서 어머니의 양육표상이 거부적인

경우인 20명의 어머니 중 6명은 자녀가 의존 애착유형으로 분류된 것을 상기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의 발달 연구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애착 패턴들이 본래 정서적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정서적 성향들은 특정한 관계 경험들로부터 생겨난다는 이해와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Cassidy(1994)는 애착과 정서 조절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회피 애착유형은 비활성화 전략으로 정서를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반면, 양가적 애착유형은 극도의 경계 전략으로 정서를 과장하거나 상승시킨다고 보고했다.

이런 정서 조절 양식은 아동기에 굳어져 성인기까지 계속된다고 하여 성인 애착연구 분야에서는 성인의 낭만적 관계와 억압된 정서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해오고 있다. Magai(1999)는 거부 애착유형의 성인은 정서적으로 억압되어 있어서 정서 표현을 자극시켜 줄 타인을 필요로 하는 반면, 몰입(양가적) 애착유형의 성인은 극대화 전략을 갖고 있어서 디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정서표현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거부 애착-몰입 애착 관계의 맥락에서는 낮은 정서성으로 인한 권태가 파트너에 의해 자극적인 지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성인기 낭만적 애착연구들은 몰입 유형과 거부 유형은 상반된 유형의 파트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몰입 유형끼리 또는 거부 유형끼리 파트너가 되는 경우보다 몰입 유형-거부 유형이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Collins & Read, 1990; Kirkpatrick & Davis, 1994). 본 연구 결과는 애착과 정서 조절 양식의 관계가 성인기 낭만적 애착관계 뿐 아니라 성인-유아기 자녀 애착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여 지지만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

착체계간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통계적 모델을 밝혀보기 위해 안정/불안정유형의 2범주로 묶어서 로그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일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매개되는 간접효과임을 가정하는 조건부 독립성 모형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도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간의 일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매개됨을 보여주는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애착의 질은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예; 장미자 · 조복희, 1999; Benoit & Parker, 1994; Fonagy 등, 1991; George & Solomon, 1996; Ward & Carlson, 1995) 및 자녀(예; Benoit, Parker & Zeanah, 1995; Bretherton 등, 1989; George & Solomon, 1996)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예; 박경자, 1999; Isabella & Belsky, 1991; Pederson & Moran, 1995; Stevenson-Hinde & Shouldice, 1995)과 강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한 쌍으로 기능하는 양육체계-애착체계의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및 자녀의 애착을 조사한 연구는 George와 Solomon(1989)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양육에 대한 내적실행 모델과 아동의 애착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행동을 조사한 George와 Solomon (1989)의 연구와 비교해보았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아동의 애착은 강한 상관을 보였지만,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련성은 미미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George와 Solomon(1989)은 유아-어머니

상호작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주어 애착 행동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설계된 실험실에서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들의 제안대로 유아 낮선 상황 실험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간의 상당한 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육표상과 양육행동, 유아 애착간의 3차원 관계를 조사하여, 비록 안정유형과 불안정유형의 2범주 수준으로 분석이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표상과 유아의 애착 간의 일치를 매개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Bowlby에 의해 주장되고 최근 George와 Solomon (1999)에 의해 발전되어 오고 있는 양육행동체계 개념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양육체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밝혀보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 낮선 상황 실험을 통해 유아의 애착을 분류하고,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분류하였으며, 어머니와의 면접을 통한 양육표상 분류도 앞의 두 분류체계와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수집된 자료는 정상집단 어머니-유아의 양육체계와 애착체계의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애착문제/장애를 보이는 유아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프로그램의 진단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애착체계와 한 쌍으로 기능하는 양육체계의 발달개념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접목시킨다면 예방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의 인구학적 특성, 특히 어머니의 높은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자원한 어머니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전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유아의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유아 낯선 상황 실험이 끝난 후 어머니와의 면접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표상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한 가지 실험 상황에 기반하여 3가지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측정방법에 기인한 공통 변량이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간의 높은 일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구자가 3가지를 모두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시기 간의 차이를 두었다고 해도 사례 수가 적은 특정 유형의 경우 연구자 요소가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분류체계는 집단 차이를 이해하고 기술하는(descriptive)데 있어서는 유용하지만, 범주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자료는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속적인 평정 척도와 범주를 함께 사용한다면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잃지 않고 분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경자(1999). 영아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기질. *아동학회지*, 20(3), 3-17.
- 박성연 · 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응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박태성 · 이승연 (역)(1995). *범주형 자료분석 개론*. 서울 : 자유아카데미.
- 이종성 · 강계남 · 김양분 · 강상진 · 이은실(2002).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통계방법*. 서울 : 박영사.
- 장미자 · 조복희(1999). 애착의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아동학회지*, 20(1), 147-164.
- 홍계옥(1994).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지적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4), 181-191.
- Aber, J. L., Slade, A., Berger, B., Bresgi, I., & Kaplan, M.(1985). *The Parent Develop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 Psychological Study of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Benoit, D., & Parker, K. C. H.(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enoit, D., Zeanah, C. H., Parker, K. C. H., Nicholson, E., & Coolbear, J.(1997). Working model of the child interview : Infant clinical status related to maternal percep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8, 107-121.
- Biringen, Z., Matheny, A., Bretherton, I., Renouf, A., & Sherman, M.(2000). Matern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as parent : Connections with maternal sensitivity and maternal structuring.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 218-232.
- Bowlby, J.(196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Biringen, Z., Ridgeway, D., Maslin, C.,

- & Sherman, M.(1989). Attachment : The parental perspectiv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203-221.
- Cassidy, J., & Berlin, L. J.(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91.
- Cassidy, J., & Marvin, R. S., with the MacArthur Working Group on Attachment(1992). *A System for Classify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ttachment-Behavior of 2½ to 4½-year-old Children*. Unpublished coding manual. University of Virginia.
- Cicchetti, D., Cummings, E. M., Greenberg, M. T., & Marvin, R. S.(1990).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n attachment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3-49).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oper, G., Hoffman, K., Marvin, R., & Powell, B. (1999). *Circle of Security Interview*. Unpublished interview, University of Virginia.
- Cox, S. M., Hopkins, J., & Hans, S. L.(2000). Attachment in preterm infants and their mothers : Neonatal risk status and maternal representa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 464-480.
- de Wolff, M. S., & van IJzendoorn, M. H.(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Fonagy, P., Steele, H., & Steele, M.(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George, C., & Solomon, J.(1989). Internal working models of caregiving and security of attachment at age six.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222-237.
- George, C., & Solomon, J.(1996). Representational models of relationships : Links between caregiving and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 198-217.
- George, C., & Solomon, J.(1999). Attachment and caregiving : The caregiving behavioral system.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649-670). New York : Guilford Press.
- Goldberg, S., Grusec, J., & Jenkins, J.(1999). Confidence in protection : Arguments for a narrow definition of attach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475-483.
- Greenberg, M. T., Speltz, M. L., Deklyen, M., & Endriga, M. C.(1992). Attachment security in preschoolers with and without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 A replic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13-430.
- Hesse, E.(1999).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 Historical and current perspectives. In J. Cassidy & P. S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395-433). New York : Guilford Press.
- Isabella, R. A., & Belsky, J.(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Magai, C.(1999). Affect, imagery, and attachment : Working models of interpersonal affect and socialization of emotion. In J. Cassidy & P.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 787-802). New York : Guilford Press.
- Main, M., & Cassidy, J.(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six :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Marvin, R. S., & Britner, P.(1995). *Classification system for parental caregiving patterns in the preschool strange situation*. Unpublished classification manual. University of Virginia.
- Marvin, R. S., & Britner, P.(1999). Normative development : The ontogeny of attachment. In J. Cassidy & P.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 44-67). New York : Guilford Press.
- Marvin, R. S., & Whelan, W. F.(2000). *Child-Parent Attachment Clinic Post-Strange Situation Interview*. Unpublished materials, Department of Psychiatric Medicine. University of Virginia.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1). Child-care and family predictors of preschool attachment and stability from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7, 847-862.
- Pederson, D. R., & Moran, G.(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 (2-3, Serial No. 244), 111-128.
- Robinson, L. L.(2003). *Caregivers' internal working models : The Circle of Security Interview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Slade, A., Belsky, J., Aber, J. L., & Phelps, J.(1999). Maternal representations of their toddlers : Links to adult attachment and observed mo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11-619.
- Solomon, J., & George, C.(1996). Defining the caregiving system : Toward a theory of caregiving.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 183-197.
- Stevenson-Hinde, J., & Shouldice, A.(1995). Maternal interactions and self-report related to attachment classifications at 4.5 years. *Child Development*, 66, 583-596.
- Thompson, R. A.(1997). Sensitivity and security : Questions to ponder. *Child Development*, 68, 595-597.
- van IJzendoorn, M. H.(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Ward, M. J., & Carlson, E. A.(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 Zeanah, C. H., Benoit, D., Hirshberg, L., Barton, M., & Regan, C.(1995). Mothers' representations of their infants are concordant with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Developmental Issues in Psychiatry and Psychology*, 1, 1-14.

2005년 4월 30일 투고 : 2005년 6월 20일 채택